

화학제품 수출증가를 높지 않았다!

한국은행, 수출물량지수 8.8% 상승 불과 ... 석유제품은 10.1% 하락

2003년 국내 화학제품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출물량지수 또한 2002년보다 8.8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석유제품 수출물량지수는 1/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03년 전체적으로 2002년보다 10.1% 낮아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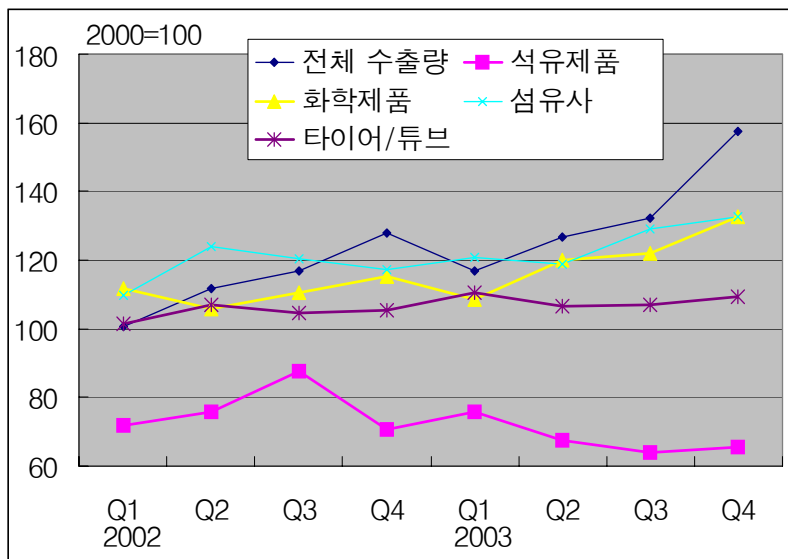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화학제품 수출물량지수는 1/4분기 108.4, 2/4분기 119.9, 3/4분기 121.8, 4/4분기 132.5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.

그러나 국내 전체 수출물량지수가 1/4분기 116.8, 2/4분기 126.6, 3/4분기 132.4, 4/4분기 157.6으로 전년대비 16.9%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.

석유제품 수출물량지수는 1/4분기 75.6 이후 2/4분기 67.4, 3/4분기 64.0으로 하락하다 4/4분기 65.5로 간신히 2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섬유사의 수출물량지수는 120.7, 118.8, 129.1, 132.7로, 타이어·튜브는 110.7, 106.5, 106.8, 109.3으로 두 품목 모두 2/4분기에 주춤하다 다시 전년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.

수출물량지수 등락률 추이



한편, 2003년 전체 수출물량지수는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,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신장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16.9% 늘어난 133.4로 2002년 13.3% 증가한 114.1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.

특히, 4/4분기 중에는 금(428.6%)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승용차(76.2%), 정보통신기기(21.5%), 기계류 및 정밀기기(17.1%), 반도체(13.4%) 등 대부분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3/4분기보다 19.0%, 전년동기대비로는 23.3% 증가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26>